

# 건군 47주년 국군의 날 행사

건군 제47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金泳三대통령과 3부요인, 정부 및 軍 고위관계자, 참전 용사,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남계룡대에서 거행되었다.

광복 50주년을 맞아 치루어진 이번 행사는 6천여명의 각군 병력이 참가하여 국군의 위용을 선보였다.

특히 軍 원로 1천여명이 초청되어 白善燁 前육군참모총장, 張泰玩 재향군인회장 등 6명이 오픈카에 분승하여 金대통령과 함께 장병들을 사열하였다.

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처음으로 행사장 중앙 전면에 가로 15m 세로 10m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국군의 발자취로부터 각군 소개, 최신예장비 등 7백여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었다.

이날 행사는 각군 의장대 시범, 기념식, 각군 부대 열병, 특공 무술, 고공강하, 각군 부대 분열, 전투기 편대비행 및 공중분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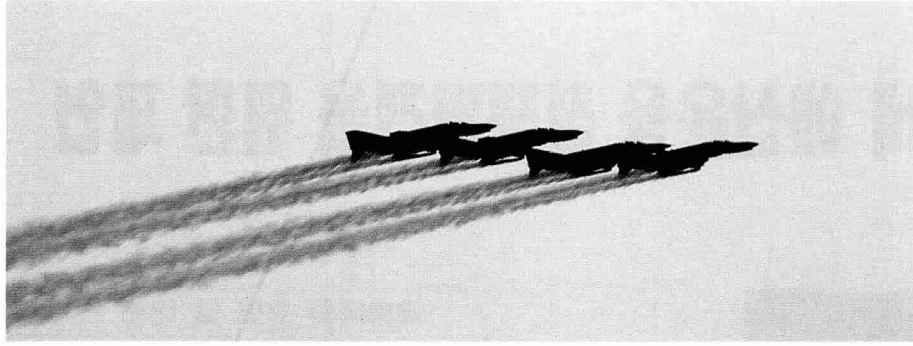
◀ 태권도를 기초로 하여 발전시킨 특공무술



▼ 고공강하



▲ 막강 국군의 위용을 나타내는 국군 기수단의 모습



◀ 「영공의 파수꾼」  
F-4 팬텀기의 축하  
비행



▶ 특전 용사들의  
보무당당한 행진

